

대권 도전에 날개 달아준 '최고의 뒷받침'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3> 심재학 단장

"우승의 기쁨은 오늘 하루로 끝이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사과와 함께 지난 시즌 종료 후 고개를 숙였던 심재학 단장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인사로 박수 속에 올 시즌을 마무리했다. 가을 야구 탈락에서 열두번째 우승으로 KIA타이거즈의 위치를 180도 바꿔놓은 덕분이었다.

지난해 시범경기를 마친 직후 장정석 전 단장의 급품 요구 의혹이 일며 시즌 도중 소방수로 투입된 심 단장은 1년을 수습에 고백 매진했다. 특히 조직 내부 정비에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운영과 데이터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수습에만 임기 첫해를 보낸 심 단장에게 또 악재가 닥쳤다. 올해 스프링 캠프 출발 직전 김종국 전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며 전격 경질됐고, 이범호 감독을 선임 사령탑으로 선임하며 재차 분위기 수습에 나서야 했다.

연이은 풍파 속에서도 심 단장은 꺾이지 버텼다. 2023시즌을 우승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삼았다면 2024시즌은 잘 뿌려놓은 씨앗의 성과를 수확하는 해였다. 특히 초보 행정가와 초보 사령탑이 나란

김태군 영입·재계약 결과로 증명 선수단 해외 파견 기량 향상 도모 외인 투수 부진·부상에 적극 투자 "기쁨은 하루로 끝... 새 시즌 시작"

히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먼저 해결한 과제는 안방 강화였다. KIA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박동원이 자유 계약(FA) 시장에서 LG로 떠나며 주전 포수를 잃었고 주효상과 한승택, 신범수, 김선우, 한준수가 돌아가며 마스크를 썼다.

다섯 명의 포수가 시간을 분배해야 할 정도로 확실한 주전이 없었기에 심 단장은 지난해 7월 류지혁과 맞트레이드를 통해 안방 강화를 이뤘다. 이어 10월에는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하며 김태군을 확실히 눌러앉혔다.

안방을 강화한 뒤에는 선수단 기량 향상을 위해 해외 파견 루트를 개척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호주 프로야구(ABL) 캔버라 캐벌리에 내야수 박민과 투수 김현수를 풀 시즌, 투수 광도규와 김기훈, 유승철, 흥원빈을 하프 시즌 동안 파견하며 실전 경험을 쌓게 했다.



KIA타이거즈 심재학 단장이 지난달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승리, 4선승 고지를 밟으며 우승을 차지한 뒤 축사회에서 선수단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이어 지난해 12월부터는 미국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에 투수 광도규와 윤영철, 이이리, 정해영, 황동하와 함께 정재훈 투수 코치와 이동걸 불펜 코치를 보내 구속 증가와 구위 향상, 지도 프로그램 습득 등을 도왔다.

FA 시장에서는 집토끼 단속에 집중했다. 이미 김태군을 붙잡아놓은 상황에서 고종욱, 김선빈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최형우와는 비FA 다년 계약을 맺으며 주축 선수들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또 올 시즌에 앞서 토마스 파노니, 마리

오 산체스와 모두 결별하고 월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로 외인 투수진을 꾸렸지만 부상과 부진 등 변수가 이어지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크로우가 팔꿈치 부상을 입자 캡 알드레드를 영입한 뒤 애매한 모습을 보이자 에릭 라우어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고, 네일이 시즌 막바지 턱관절 골절을 당하자 에릭 스타우트를 긴급 수혈했다. 네일의 긴급 수술 과정에서도 심 단장을 필두로 한 프런트의 신속한 대처가 빛났다.

이같은 과정들은 우승이라는 결과물로

꽃을 피웠다. 정규시즌을 완주한 김태군은 한국시리즈에서도 다섯 경기를 모두 주전으로 책임졌고, 특히 4차전에서는 만루홈런을 터트리는 등 맹활약으로 우승 포수의 꿈을 이뤘다. 후배인 한준수의 성장세에도 선배 김태군의 역할이 컸다.

또 광도규는 한국시리즈에서 두 차례 구원승을 챙기는 등 필승조의 중심으로 우뚝 섰고, 정해영은 호랑이 군단의 뒷문지기로서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윤영철과 이이리, 황동하도 향후 KIA의 선발진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으로 성장했다.

네일 역시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듯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시리즈 출전이 어렵다는 전망 속에서도 수술 이후 한국에 남아 재활에 매진하며 엄청난 회복 속도를 보였고, 1차전과 4차전 선발을 훌륭히 책임졌다.

하지만 심 단장은 올해 우승이라는 성과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마음가짐이다. 프런트를 책임지는 수장인 만큼 곧바로 새 시즌 구상과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심 단장은 우승 직후 "제게 우승의 기쁨은 오늘 하루로 끝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다. 당장 전략 회의부터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더욱 철저하고 겸손하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 올해보다 나은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미츠마타 타이키 수비 인스트럭터 초빙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훈련서 젊은 선수 수비 기량 향상 중점

2024시즌 최다실책을 기록한 KIA타이거즈가 일본인 인스트럭터를 초빙해 수비 강화에 나선다.

KIA는 4일부터 시작한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훈련에 NPB 출신 미츠마타 타이키(32·사진)를 수비 인스트럭터로 초빙했다고 5일 밝혔다.

미츠마타 타이키는 지난 2010년 오릭스에 입단해 주니치를 거쳐 2023년부터 올 시즌까지 야쿠르트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그는 NPB 내에서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감 있는 송구 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내야 수비로 인정 받은 선수라는 게 KIA



구단의 설명이다. KIA는 올해 146개의 실책을 범하며 최다 실책의 불명예를 안았다. 최소 실책 삼성(81개)에 비해 65개나

더 많다. 강력한 3할 타선과 탄탄한 마운드로 올 시즌 우승을 이뤘지만 내년 시즌 정상 수성을 위해서는 수비 안정이 절실하기에 일본의 수비 전문 인스트럭터까지 초빙하게 됐다.

KIA 관계자는 "마무리캠프 기간 동안 기본기를 다지는 등 젊은 선수들의 수비 기량 향상을 위해 인스트럭터를 초빙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 황수련, 태극마크 달았다

회장기 검국대 1차선발전 2위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황수련(사진)이 2024 회장기전국유도대회 겸 2025년 국가대표 1차선발전에서 2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황수련은 4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52kg급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황수련은 32강전에서 김서현(용인대)을 업어치기되지기 절반승으로, 16강전에서 장예진(포항시청)을 안다리걸기 절반승으로, 8강전에서 이본(용인대)을 업어치기되지기 한판승으로, 준결승전에서



오연주(성동구청)를 반칙승(지도 3개)으로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황수련은 결승전에서 장세운(한국체대)을 만나 연장 8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모로던지기 절반패를 당했다.

이로써 황수련은 상위 성적 2명을 국가대표로 뽑는 이번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황수련은 이달 말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내년 3월 순천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대비한 훈련을 이어간다.

최동환 기자



KIA타이거즈 투수 장현식(왼쪽부터)과 내야수 서건창, 투수 임기영이 2025년 FA 승인 선수로 공시됐다. KIA타이거즈 제공

'V12 공신' KIA 장현식·서건창·임기영 FA 시장으로

KBO, FA 승인 선수 20명 공시 오늘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 가능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5년 FA 승인 선수 명단을 공시한 가운데 올 시즌 열두번째 우승을 거머쥔 KIA타이거즈에서는 최대어로 꼽히는 투수 장현식을 비롯해 내야수 서건창과 투수 임기영 등 주축 선수들이 시장에 나와 계약 여부가 주목된다.

KBO는 2025년 FA 승인 선수로 장현식과 서건창, 임기영을 비롯해 김강률, 허경민(이상 두산), 구승민, 김원중(이상 롯데), 류지혁, 김현곤(이상 삼성), 문성현(키움), 하주석(한화), 엄상백, 우규민, 심우준(이상 KT), 최원태(LG), 이용찬, 임정호, 김성욱(이상 NC), 노경은, 최정(이상 SSG) 등 20명이 공시됐고 5일 밝혔다.

은퇴를 선언한 김강민(한화)과 박경수(KT), 방출 통보를 받은 심창민(전 NC)을 비롯해 김재호(두산)와 진해수(롯데), 이용규, 최주환(이상 키움), 이재원(한화), 오재일(KT), 서진용(SSG) 등 10명은 FA를 신청하지 않았다.

FA 승인이 공시된 선수들은 6일부터 해외 리그를 포함한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KBO리그에서는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를 최대 2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KIA는 올 시즌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한 세 선수가 시장에 나온 만큼 집토끼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시즌 전상현, 정해영과 함께 'J-J-J' 필승조를 구축했던 장현식은 불펜 자원 중 최대어로 꼽힌다.

장현식은 올 시즌 75경기에서 나서 5승 4패 16홀드와 평균자책점 3.94를 기록했

다. 8월말 옆구리 통증으로 열흘간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풀타임을 소화했고, KIA 불펜진 중 가장 많은 경기와 이닝을 소화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다섯 경기에 모두 나서 5이닝 무실점으로 1홀드를 챙기며 활약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 유니폼을 입은 서건창은 2022년부터 4수 끝에 FA 시장에 나섰다. 서건창은 올해 1루와 2루를 모두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으로 변신하며 94경기에서 타율 0.310으로 26타점과 40득점을 생산했다.

임기영은 아픈 손가락이다. 지난 시즌 64경기에서 82이닝을 소화하는 등 피로가 누적됐고, 부상까지 겹치면서 올 시즌 37경기에서 6승 2패 2홀드 평균자책점 6.31에 그쳐 한국시리즈 엔트리 승선이 무산됐다.

한규빈 기자